PART 05



국제 농업 정보

1. EU, 농식품부문 통제 위한 새로운 규정 승인
2. WTO, 최근 미국 무역정책 검토 결과 발표
3. 일본·EU EPA협상 재개
4. 일본기업, 코셔인증상품 주목
5. 일본, 농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본격화

국제 농업 정보 (2017. 1.)



EU, 농식품부문 통제 위한 새로운 규정 승인

EU회원국, EU 농식품부문 통제 위한 개정안 공식적 지지

❍ EU회원국들은 유럽의회의원들과 합의한 EU농식품부문 통제를 위한 EU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여 왔음. 개정된 EU규정은 관료주의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자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유럽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조항을 간소화하여 식물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통제를 위한 통합된 규정을 정립할 계획임.

❍ 2016년 6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협상자들은 공식적으로 통제를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마침내 합의하였음.

- 관계자에 따르면 말고기 스캔들 이후인 2013년에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사기 및 기만적인 관행과 관련하여 더 나은 규정 및 처벌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교착상태에 있던 수입(imports), 공식인증(official certification), 표준 실험실(reference laboratories)의 통제 관련 규정을 포함한 일부 주요 이슈가 해결되었음.

❍ 2016년 12월 19일, 각 회원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규정안을 승인하며, 2017년 1월 16-19일에 개최될 다음 총회에서의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제1독회(first reading)의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제2독회(second reading)에서 투표할 예정이나 투표는 수정안 없이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승인하기 위해 이뤄질 것임.
- 법률적인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기 전 EU공식저널을 통해 게재될 예정임.

새로운 규정안의 주요 특징

❍ 새로운 규정은 식량 및 사료 안전, 동물 건강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사료 및 식량 생산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부문에서의 회원국의 통제 방안을 개선하고, EU규정의 올바른 적용 보장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농산물 마케팅 표준의 특정 요소뿐만 아니라 EU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서 사기성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광범위한 공식적인 통제규정에 따른 유기농식품부문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EU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는 개정이 어려운 절차를 고려하여 이를 EU의 유기농 규정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해당 규정은 현재의 EU규정 범위를 확장하면서 육류 검사 및 동물복지 통제, 새로 발견되는 위험요인과 같은 개별부문의 특정 요구사항들을 고려하기 위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EU회원국들은 정기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사전예고 없는 통제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음.
- 일관성 유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검열해야 하며, 향후 회원국 통제계획안이 EU에서 채택되어야 함.
- 또한 회원국들은 개인적인 불만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함께 잠재적 혹은 실제 규정 위반의 내부고발에 대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할 것임.

❍ 회원국은 통제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수수료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회원국에서 수행한 통제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등급을 공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것임.

❍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 Gabriela Matečná은 새로운 규정의 승인을 환영하며, 새로운 규정이 "식품사기와 스캔들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통제의 투명성과 엄격성에 대한 강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유럽의회의원장 Karin Kadenbach는 위험기반의 사전예고 없는 통제 및 의도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환영함.
- 그는 EU소비자들이 "식품 추적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2013년, 말고기 스캔

들 이후 육류 공급사슬의 “무결성(integrity)”을 올바르게 제기했다고 경고함.

❍ 통제규정 개정안은 2013년에 제안된 ‘동식물 건강패키지’의 일부로, 70개의 법안을 5개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지출규정부문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쳤지만 유럽의회의원들이 종자(seeds)에 대한 안건은 거절함에 따라 해당 제안은 철폐되었음.
- EU 의사결정자들은 2016년 3월에 공식적으로 채택한 EU 동물건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새로운 EU 식물건강 규정에 대한 합의가 2015년 12월에 이뤄지면서 이번 달 법으로 제정되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2.23.)

WTO, 최근 미국 무역정책 검토 결과 발표

❍ 2016년 12월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의 최근 검토 결과는 정책 목표 및 다자간 및 지역무역협상에서의 미국의 참여에서부터 반덤핑에 대한 세부 사항과 최근 개발된 제품 표준에 이르기까지 미국 무역정책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음.

- 최근 농업정책은 더 많은 목표 가격 및 생산 보조금과 꾸준한 국내 식량 원조 증가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농민들은 부유한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농업부문에 관한 검토 결과는 2014년 농업법(Farm Act)에 의거하여 생산자 지원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이 농업지원에 미치는 영향과 WTO에게 있어 중요한 농업 지원프로그램이 무역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음.

❍ 농업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프로그램은 농작물의 가격 수준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과거의 기준 에이커와 산출량의 몫에 대한 지급금을 제공함.
- '농업위험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프로그램은 자치주(country) 및 농장 수준에서의 농산물(covered commodities) 수익이 자치주 기준 및 개별 기준 보장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과거의 기준 에이커와 산출량의 몫에 대한 지급금을 제공함.
- '추가보상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은 지역 기반의 추가적인 보험 정책임.
- '누적소득보호계획(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은 자체적으로 또는 기타 작물 보험과 함께 구매가 가능한 고지대 면화생산자들을 위한 보험 계획임.
- '낙농생산자 수익 보호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 for Diary Producers, MPP-Diary)' 등이 있음.

❍ WTO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데이터는 PLC와 ARC프로그램 하의 총 지급액은 회계

연도 2013년과 2014년에 매년 50억 달러 이하의 중단된 프로그램 하의 "과거 지출금과 현저히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OECE 생산자 지원

❍ 보고서는 OECD의 미국에 대한 생산자 지원 추정액이 약 400억(2014년 기준) 달러로 총 농장수취액(receits)의 약 10%이며, 이는 전체 OECD 국가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지적함.

- 생산자 지원과 국경보호조치(border protection) 모두 19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상품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WTO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추적하는 주요 농산물 중 가장 높은 단일품목 지원(single commodity transfers)은 총 농가 수취액에 대한 백분율로 설탕과 우유, 면화에 제공됨."

❍ 원칙적으로 OECD는 도움이 필요한 농부들에게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및 위험관리에 대해 미국의 정책 초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OECD는 2014년 농업법(2014 Farm Act)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위험을 공공예산으로 이전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WTO 지원금 계산

❍ WTO의 자체적 계산법은 다름. 가격 및 산출(output)을 왜곡시키는 지원(앰버 박스(Amber Box) 또는 총량농업지원 측정방법(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으로 알려진)과 이들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지원(그린박스(Green Box))을 구분함.

- 미국이 WTO에 보고한 수치에 따르면 개별 제품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적용되는 '비특정 제품' 지원이 2012년 이후 대폭 하락한 가운데, 2013년도의 총 앰버박스 지원은 13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옥수수, 설탕, 낙농제품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음.
- 이 중 일부분은 '최소 허용 보조(de minis spport)'로 알려진 것으로, 이는 WTO가 적용하는 AMS 한도에서 제외되며, 생산가치의 5%까지 허용됨.
- '최소 허용 보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보고한 2013년도 AMS는 69억 달러였으며, 이는 WTO의 법적 AMS 제한금액인 191억 달러의 1/3을 조금 넘는 수준임.

❍ WTO 사무국은 낙농 및 설탕부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은 당시의 시장 가격 지원프로그램과 지원금 계산의 방법론적 요소를 반영한다고 언급함.
- 한편, 미국 그린박스 지원(최소 또는 비왜곡)은 WTO의 아무런 제약이 없이 허용되며,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 동안 급증하여 2013년도에는 1,325억 달러에 달했음.
- 지금까지의 가장 큰 비중은 국내 식량 원조로 총 1,096억 달러에 달함.

❑ 수입 관세 및 관세 할당

❍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는 복잡하며, 산업 제품(4%)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음(평균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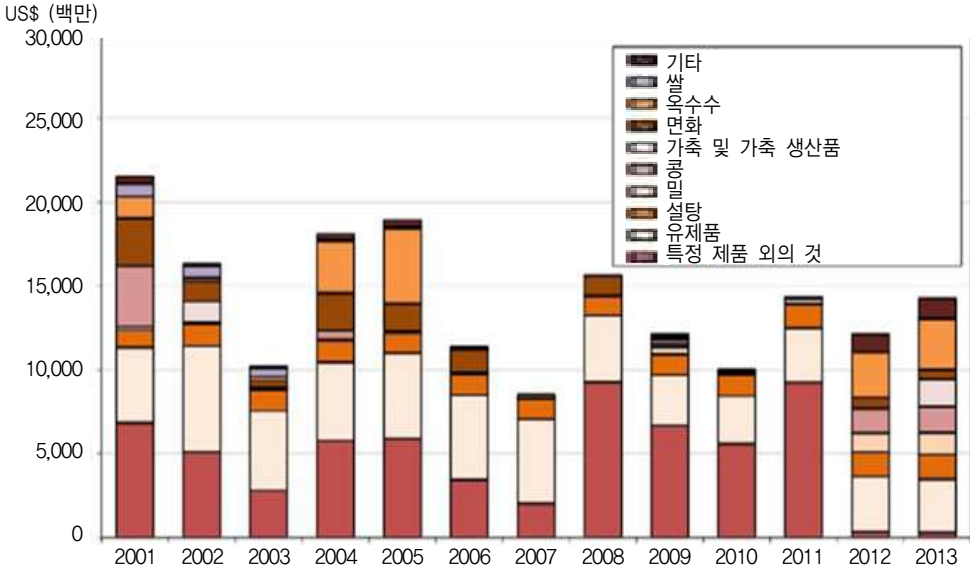
❍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표준 관세('MFN'로 알려진 비특혜 및 외부 관세 할당(non-preferential and outside tariff quotas))는 세 가지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사실 10%를 초과함. -
- 유제품(평균 27.6%), 음류, 주류 및 담배 (22.9%), 설탕 및 제과류 (10.8%)

❍ 실제 환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치(2012년도의 농업 부문의 평균치: 8.5%)는 약간 증가한 것은 몇몇 요소를 수량(quantity) 대비 달러(종량세(specific duty))로 표시하고, 비교를 위해 가격을 비율로(종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s)) 변환하였기 때문임.

❍ 보고서에서 종량세 및 복합세의 종가세 상당치를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자재 가격을 완화함으로써 계산한 관세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유제품, 면화, 설탕 및 제과류의 현재 평균 수입 관세는 더 높지만 곡물, 음료, 담배부문에서는 더 낮음.
- 또한 미국의 농산물 수입 관세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운송 및 착륙 비용을 제외한 관세 가격에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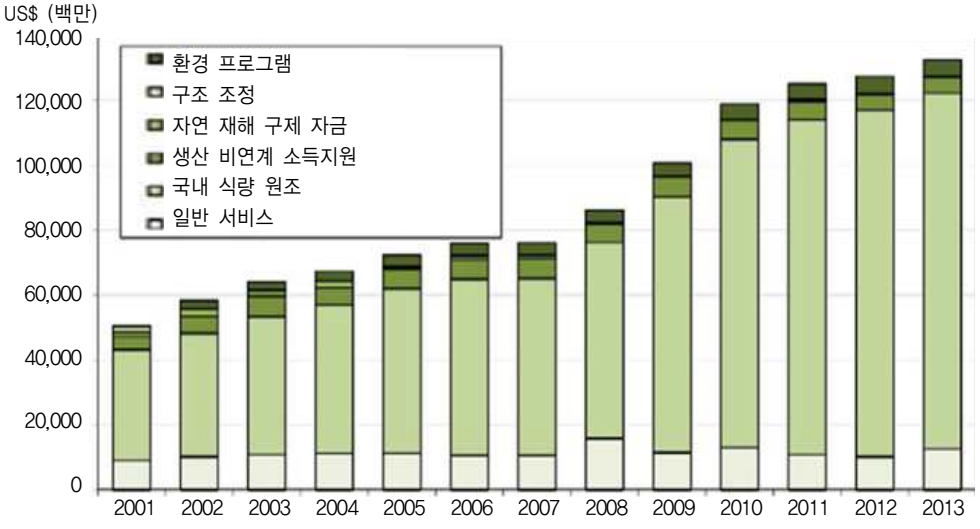
❍ 미국은 44개의 제품 범주 또는 약 200개의 하위 부문(관세선)에 대한 관세 할당량(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관세 수입 인하 또는 면세 수입)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제품 범주는 소고기, 치즈 및 기타 유제품, 설탕 및 설탕 함유 제품, 담배, 면화임.
- 설탕 할당량은 각국이 과거에 공급한 양에 따라 약 40개의 수출국에 할당되며,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됨.

그림 1. 앰버박스(총량농업지원측정방법(AMS)) 2001–2013



주: 미국 무역왜곡 보조금 변동량(주요 대상인 옥수수, 유제품, 설탕이 결정적임).

그림 2. 국내식량원조 그린박스지원 2001–2013



주: 미국 비왜곡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함. 이중 대부분은 국내식량원조 그린박스지원임.
자료: WTO 사무국, US Trade Policy Review 2016.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2.23.)

일본·EU EPA 협상 재개

❍ 일본과 EU는 1월 둘째 주부터 경제연휴협정(EPA)교섭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개하기로 함.

- 실무자급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주에는 수석 교섭관 회의로 격상됨. 양측은 올해 초 큰 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남겨진 과제를 중심으로 의논할 것임. 협상은 2월 초반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일·EU는 2016년 12월, 도쿄에서 수석교섭관 회의를 5일간 개최하였으나 목표로 한 연중 큰 틀 합의는 이뤄지지 않음.

- 그러나 岸田文雄(기시다 후미오)외무장관과 EU의 Malmstrom의원(통상담당)은 12월 20일 전화회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 위해 1월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동의함.

❍ 일본측의 유제품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EU측의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의 중요품목의 관세를 둘러싼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EU는 농산물 중에서도 품목에 따라서 환태평양연휴협정(TPP)를 넘는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소비량을 뛰어 넘는 수입물량을 제시하는 등 엉뚱한 요구도 있다고 함.
- 한편 일본은 TPP와 같은 수준까지의 자유화를 용의할 방침으로 진행 중이며 EU관계자에 따르면 12월의 협상에서는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함.

❍ 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는 하순에 미국을 방문하여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회담에서 TPP이탈 번복을 촉구할 방침임.

- 그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일·EU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일본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월 초에는 큰 틀에 대한 합의가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또한 각료교섭으로 격상하여 최종적인 정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 EU에서

는 3월 이후 프랑스대통령선거 등 주요국가에서 선거가 이어질 예정으로 Malmstrom는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다만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전여부는 예측이 어렵다고 함.

※ 일본농업신문(2017.01.04.)

일본기업, 코셔인증상품에 주목

❍ 유대교 교리에 따라 제조된 코셔(Kosher)인증제품에 특화한 견본품시장 "코셔 페스티벌"이 2016년 11월 15~16일, 뉴저지 주에서 개최됨.
- 이는 세계 최대규모로 세계 21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일본에서도 2개 기업이 참가하여 녹차, 술, 김, 튀긴 면 등을 홍보함.

❍ 코셔인증제품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15년의 미국식품업계의 성장률은 3%이었으나 코셔인증상품 관련업계는 연간 평균 8~10%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코셔인증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유대교도는 코셔 소비자의 약 1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요 소비자는 건강, 품질, 안전성 등을 이유로 구입하고 있음.

❍ 미국 조사기업에 따르면 유대교도는 미국 인구의 2%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및 음료의 약 41%가 코셔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함.

❍ 금번 코셔페스티벌에 참가한 일본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산 와규, 술, 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코셔인증을 획득한 일본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코셔인증을 획득한 식품 수출 촉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함.
- 특히 일본산 와규의 인기가 높으며, 현재 수요 대비 생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함.
- 코셔인증을 획득한 일본산 와규는 일반 와규와 비교하여 마블링은 적지만 부드러운 육질을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있음.

❍ 영국 코셔인증기관에 따르면 코셔인증비용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함.
- 예를 들어 1년간 유효한 인증을 취득하는데 약 5,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 코셔인증획득을 위해서는 원재료나 생산라인에 관한 서류 확인, 라바이(유대교 지도자)가 제조시설을 시찰하여 현장 검증하는 것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함.

❍ 라바이에 따라 코셔인증 여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엄격한 종파의 유대인 교

도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라바이가 인증을 한 코셔상품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함.

- 또한 종파나 가치관에 따라 조리기구, 컵, 치약 등도 코셔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 JETRO(2016.12.19.)

일본, 농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본격화

❍ 일본 농수산성은 농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를 본격화함.
- 2016년에는 AI를 활용하여 숙련농업인의 기술을 신규 농업인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함.
- 2017년에는 AI를 이용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억제하거나 농장관리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을 책정함.
- 또한 AI를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농작물 수확 로봇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도 진행함.

❍ 일본 농수산성에 따르면 농수산성에서 '인공지능'이나 'AI'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함.
-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결론을 추리하여 도출하며 축적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찾아냄.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이는 일반적인 컴퓨터 소프트와는 달리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스스로 작업이나 판단의 정확도를 높임.

❍ AI를 활용한 신규 농업인의 학습시스템은 숙련 농업인의 기술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시각화하여 지금까지 수년이 소요되었던 기술학습을 신규 농업인들이 단기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동 학습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함.

❍ 2017년부터 인공지능 미래농업창조 프로젝트를 실시함. AI를 활용하여 병해충 여부 판단하고 진단함.
-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이에 병충해의 진단이 익숙하지 않은 생산자도 병충해의 발생상황을 일찍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음.

❍ 농장관리 측면에서는 농장 환경이나 생육상황, 작업인의 배치 등으로 향후 성장의 진행상황과 필요한 노력을 예측하고 작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임.

- AI를 활용하여 노동력의 최적 배치 판단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농업신문(2017.01.07.)

자료 작성 : 홍예선 연구원